

회화 작가, 진유영을 만나다 지금도 자라고 있는 작가, 진유영

살고 살아가는 관계 속, 나와 우리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재불작가, 진유영 작가.

빛과 어둠으로 진리를 그리는 일흔의 노(老) 작가와 오랜 바라기
김태항 실행위원장(명지대 교수), 그리고 본지 에디터 신호영이 만나다.

🌀 인터뷰어_김태항, 신호영



신효영
(이하 신)

환기미술관에서 열렸던 작가님의 개인전 《빛 위에 그리다》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유영
(이하 진)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일 년에 두 번 정도씩 오가며 작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빛 위에 그리다>는 작품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서의 빛은 완전한 빛, 진리를 말하는데 회화는 빛이 아닌 영역이기에 빛을 그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환기미술관에서 《빛 위에 그리다》라는 제목의 전시를 하는 동안,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모네, 빛을 그리다展》이 열리고 있었어요. 모네가 그린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반사된 물체를 그린 것이지요. 저의 회화는 빛을 그리지 않고 빛을 가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는 서로 대립되며 서로 침투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진실(true)을 통해 진리(Truth)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회화는 회화가 빛이 아님을,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빛을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오히려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빛은 어두움(회화)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머금은 실체들이 작품에 드러나는데 저는 이것을 ‘빛송이’, 혹은 ‘땅에 있는 별’이라 부릅니다.

이번 전시는 1969년 프랑스 유학 이후 현재까지 45년 동안의 작업을 정리한 두 개의 연결된 스토리입니다. 첫 스토리는 1970년부터 1999년, <자아의 죽음에서 새로운 자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스토리는 2000년부터 2015년, <회화의 위상과 영적 흐름>으로 두 스토리는 제 회화의 역사이자 삶의 여정입니다. 45년이란 시간 중 처음 30년은 제 자아가 죽는 긴 과정이었어요. 자아의 죽음, 그 과정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벨기에 시인이자 화가였던 앙리 미쇼(Henri Michaux)가 ‘나는 나의 여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유함 속에서 창작을 하려면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스토리에서는 작품의 화면이 작가의 은유적 신체라고 여겼죠.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은유의 차원을 벗어나 ‘회화는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화의 위상을 물으며 존재 방식



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존재에 대한 사고는 어려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와 너, 나는 왜 나이고 너는 왜 너인가,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등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세상과 이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아보던 것이 작업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회화도 존재적 회의의 맥락에서 회화에 대한 질문이 주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방식 역시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신 ■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혹시 젊은 나이에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하며 이방인으로 살았기에 더 깊어진 것은 아닐까요?

진 ■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 보니 1968년 좌익사태 난 바로 다음 해였어요. 가치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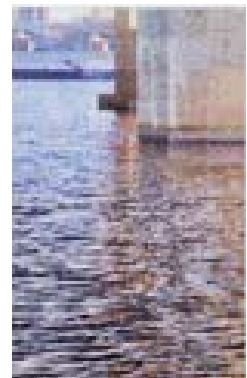
명을 전후로 개념미술, 신사실,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e),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베엠페터(B.M.P.T), 쉬포르-쉬르파스(Suport Surface) 등 새롭고 혁신적인 미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가장 진취적인 경향들이 만연한 이 물결의 커다란 흐름 속에 저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작가로서의 위상을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1970년, 그러한 저의 절실함 속에서 저의 첫 연작인 <하늘 바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분무기로 뿌려 그리고 그 위에 창을 뚫어, 보이는 화면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품들과 부딪힌 충격들이 당시 저의 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 ■ 작가님의 환경, 68혁명 이후 폭발적인 문화 홍수의 시대에서 찾은 열쇠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였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정도의 차는 있지만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의 문화가 짧은 시간동안 너무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고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작가님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진 ■ 하나의 이해, 예는 될 수 있겠네요.

신 ■ ‘영적’이란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 ■ 대부분 ‘영적’이라는 발언을 하면, 대부분이 ‘형이상학적’, 혹은 ‘정신적’이라는 말로 이해하거나, 종교적 영역의 좁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명료합니다. 일반적인 언어에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만, ‘영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이나 ‘정신적’ 혹은 ‘종교적’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섭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 ‘나’라는 대상이 있고요. 절대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소통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과 다르고, 진리의 실체인 열매가 있기에 ‘정신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불어 나를 포함한 총체이기에 필연적으로 작품 속에 내가 드러납니다.





숲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나뭇잎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 때, 빛을 가리는 나뭇잎 때문에 더 강한 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세리의 회개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을 가리는 자입니다. 빛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옆의 바리새인은 열심히 빛을 흉내 내며 기도하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빛은 한편으론 자신의 어두움을 고백하는 세리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론 빛을 흉내 내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어둠덩어리인 나에게 진리의 빛이 임할 때, 그 앞에 나의 어두움이 고백되고 그 빛이 나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신 ■ 많은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인 분들이 작품과 신앙고백의 교차로에서 솔한 갈등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고요, 작가로서 믿지 않는 작가들과의 갈등, 믿는 자들의 예술에 대한 몰이해로 빚어지는 갈등 등, 그들에게 이미 그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 ■ 저에게 갈등은 작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씨름이 작품으로 발현됩니다. 저는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를 배제합니다. 종교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듣는 작품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든지 제가 말하는 것을 듣든지 ‘네가 크리스천이라 난 못 알아듣겠다’ 하면 저는, 제 작업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언어로 우리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벽을 넘어야 해요. 그러려면 더 정확하고 예리해야 합니다. 언어를 더 단련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움과 열정, 죽음 앞에 누려봐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작가이며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 작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



천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러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가 단 하나의 답이라 할 수는 없지요. 또 언젠가는 필요에 따라 저 또한 마지막 작품이 직접 복음이 소통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그것을 요구할 때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 ■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도대체 뭘까요? 모두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술이 무엇인지 싶습니다.

진 ■ 그런 말이 있죠.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예술은 저만큼 가서 웃고 있다고. 좋은 예술이 아니다 정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이러니까 예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하는데, 예술자체에는 대단한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사고의 틀로는 좋다/아니다 단언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안목이 있지만 안목 너머 어두운 부분, 그 속에도 예술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출하길 절실히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실히 좋은 작품은 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계속 작품을 접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미술전시회든 음악회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보면 보통 극장이나 마켓 세일보다도 미술 전시장이나 음악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줄이 긴 것을 봅니다. 또 작은 월급에서도 작품을 자꾸만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그렇게 사는 것이 문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자꾸만 작품을 모으면서 보는 안목이 자라납니다. 작품을 살 때는 대부분 자기 내면의 필요에 답을 주는 작품을 사게 되거든요. 작품이 그 필요에 답을 해주고, 또 상황에 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거장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필요에 답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품은 보는 이에게도 그리고 작가에게도 생명체입니다.



진 ■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 저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 ■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유영아, 그림은 하나님께 그려달라고 하고 너는 전도해라.’ 하셨습니다. 가끔은 국제전화로 ‘하나님이 요새 그림 잘 그리시냐?’ 물으셨는데 저는 농담 답아 ‘아니, 요새 별로 잘 안 그리시는데?’ 답했더랬죠. 저는 예술세계가 선교지라 생각해요. 작가도 그렇지만 작품 또한 선교사고요.

가끔 파리에서 열리는 큰 현대미술전시들을 볼 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침울할 때가 많습니다. 흑암의 영이 덮어버린 것 같은 예술세계는 가장 치열한 선교지 같아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타락된 본성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이자 작가인 이들이 그곳에 작품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해요. 작가들이 더 묵상하고 씹고 소화해내어 그들의 언어로 너무나도 다양한 작품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 ■ 직접 선교사역도 하셨지요. 테러로 황폐해진 알제리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내면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출하게끔 하는 미술치료 사역을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 ■ 2005년에 어떤 분의 요청으로 알제리 수도 외곽에 있는 도시와 중부 지방에 있는 사하라 지역에도 갔었습니다. 1996년에 테러가 있던 곳에서 당시 사춘기 초반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삼촌 등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참수당했던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천진난만한 사춘기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 이들과 함께 미술작업을 했어요. 미술치료 해본 경험도 없지만, 먼저 그들의 언어와 감정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하라의 여성들에게는 현대미술을 타피스리와 수예품에 도입시켜서 그들의 안목을 새롭게 넓혀주는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문해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창작에는 자유로움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자아의 죽음 끝에 마주한 자유처럼 말이죠. 알제리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에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김 ■ 지금까지 작가로서의 인생이 45년이십니다. 회화의 방식도 많이 바뀌셨고요. 앞으로 어떤 작업으로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진 ■ 과거 작품의 화면이 나의 은유적 신체라면, 지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회화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밀랍분실 주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세한 조각을 할 때 초에다가 섬세하게 조각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입히고 구멍을 뚫고 씻물을 부으면 초가 녹고 녹은 그 자리에 쇠가 채워져 굳어집니다. 지금 하는 제 회화는 바로 화소분실 주조법이라 할 수 있겠죠. 디지털의 화소, 부동적이고 무관심한 화소의 죽음을 빼고 생동감 있고 투명한 수채 혹은 색연필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 넣는 거지요. 생명력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새순이 나오는지 살피며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의 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 ■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위에 그리다. 2015

“빛은 완전한 빛, 진리입니다.

회화는 빛이 아닌 영역이기에 빛을 모방할 수 없지요.

빛과 빛을 가리는 어둠인 회화는 대립의 관계이면서

서로 침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화가 빛이 아님을,

빛을 가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빛을 모방할 수 없음을 인정하므로

빛이 드러나 이 빛이 어둠, 회화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작가 : 진유영